

Market Index / 23일

코스피지수 ▼ 1914.22 -2.14

코스닥지수 ▼ 642.31 -7.83

유가(WTI, 달러) ▲ 31.48 +1.84

감골 평균경락가(10kg, 원) ▼ 15,700 -3,300

환율(원) 1USD 1254.57 100¥ 1118.86
팔매 1211.43 1080.38
살매 1388.31 1334.15
1EUR 201.89 179.26
1CNY

제주관광객 '카드지출 패턴' 분석한다

제주도·한은제주본부·신한카드 3자간 협약 제주관광 질적 성장 위해 카드 빅데이터 활용

제주관광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제주도, 한은은행, 카드사가 관광객의 신용카드 지출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키로 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하근철 한국은행 제주본부장, 위성호 신한카드 대표이사는 23일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제주방문 관광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는 국내 카드업계 중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신한카드의 빅데이터·조사 분석 능력과 함께 한국은행 제주본부의 지역경제 조사·연구 수행 노하우가 합쳐져 보다 객관성 있는 자료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공 서비스 개발 및 공익사업 관련 빅데이터 분석 지원 ▷빅데이터 전문 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협약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각 기관별 업무분담을 통해 체계적인 조사·분석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광객의 소비성향을 분석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지출 패턴도 분석할 수 있어 향후 제주 관광정책 수립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귀포시·제주시 고용률 전국 최고 수준

제주시는 임시근로자 비중·실업률도 높아 2015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집계 결과

서귀포시와 제주시 고용률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2015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별 주요 고용지표 집계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집계 결과 전국 9개 도의 시지역(77개) 중 서귀포시는 72.0%로 가장 높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충청남도 당진시(68.3%)와 제주시(65.9%)가 그 뒤를 이었다.

로 나타났다. 반면 제주시의 시군별 취업자 임시·일용근로자 비중은 26.3%로 나타나 경북 울릉군과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다음으로 높았다.

한편 제주시의 2015년 하반기 경제활동참가율은 서귀포시 73.2%, 제주시 67.4%로 나타났다. 취업자는 제주시 24만4000명과 서귀포시 9만2000명이었으며, 실업자는 제주시 6000명과 서귀포시 2000명으로 집계됐다.

새일여성·결혼이민여성 인턴 모집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센터장 김희정)는 2016년 새일여성인턴 35명과 결혼이민여성인턴 4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새일여성인턴은 미취업 여성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직종에 현장 실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기업에는 인력난을 해소하고 우수한 여성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는 정규직 전환일부터 3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과 인턴에게 각각 취업장려금 60만원을 지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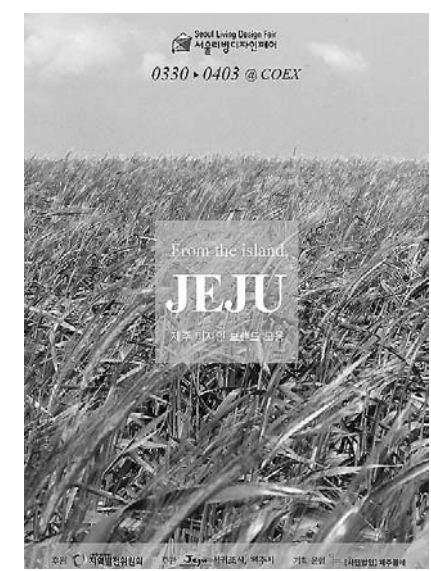
취업을 희망하는 도내 구직여성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결혼이민여성과 저소득층, 장애여성, 만55세 이상 고령자, 한부모여성 등 취약계층을 우선 연계한다.

제주올레, 제주 에코 브랜드 모집

서울리빙디자인페어 참여 기회

사단법인 제주올레가 오는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COEX)에서 열리는 '서울리빙디자인페어'에 참여할 제주 에코 브랜드를 모집한다.

제주올레는 올레 디자인페어에 참가해 제주를 주제로 개인 디자이너와 마을 주민들이 만들어낸 제주 에코 브랜드 상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org)로 오는 2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참여 브랜드의 전시 운영 및 운송은 사단법인 제주올레에서 전담하며, 인쇄물 제작, 현장 제품 판매 대행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1차 회의 인력·훈련 수요 조사 후 교육 훈련

제주지역 고용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공동위원장 김대형 회장) 제1차 위원회의가 22일 제주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제주지역 내 노·사·민·경이 참여한 협의체로 지난 2014년 12월 8일 창립했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2015년의 사업 보고 및 예산결산 보고와 함께 2016년 위원회의 위원변경을 의결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은 지역별 산업계 주도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구성해 인력 및 훈련 수요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교육 훈련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해 이뤄지고 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은 지역별 산업계 주도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구성해 인력 및 훈련 수요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교육 훈련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해 이뤄지고 있다.

제주방문 관광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빅데이터 업무협약 체결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하근철 한국은행 제주본부장, 위성호 신한카드 대표이사가 23일 제주도청에서 제주관광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카드 고객의 지출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일본노선 탑승률 증가에 '동상이몽'

제주관광공사 '제주발 수요 늘어 스케줄 확대해야' 대한항공 '초저가 덕 일시 상승...수지 악화 지속'

최근 제주-일본 노선의 탑승률이 증가한 것을 놓고 제주관광공사와 대한항공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대한항공이 운항 중인 제주-일본(도쿄·오사카) 노선은 적자 누적에 이유로 지난해 10월 25일부터 운휴했다가 제주도와 관광업계의 요청으로 3월 만에 재개됐다.

탑승률이 30%대에 머물며 적자 위기를 맞았던 이 노선은 지난해 12월부터 탑승률이 오르기 시작해 올해 1월에는 제주-오사카가 76%, 제주-니라타이 61%의 탑승률을 기록했다.

이에 제주관광공사는 지난 19일 일본 현지에서 일본 4곳의 제주관광공사 홍보사무소 소장과 한국관광공사,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일본관광 위기극복 워크숍'에서 일본 노선의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노선의 제주 출발 수요가 늘어나 항공 좌석이 모자라는 일까지 발생해 일본인관광객들의 제주관광 기회가 축소되고 있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 관광협회 등이 일본 현지에서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쳐 탑승률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수요 극부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진행 중인 초저가 항공운임 탓에 수지악화가 계속되고 있어 현재로서는 대형기종으로 변경하거나 스케줄을 확대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인중개사 제주건설링... 726-4585... 010-8660-1263... 9.1500㎡ (자연녹지) 2.300㎡ (자연녹지) 3.100㎡ (자연녹지) 4.100㎡ (자연녹지) 5.100㎡ (자연녹지) 6.100㎡ (자연녹지) 7.100㎡ (자연녹지) 8.100㎡ (자연녹지) 9.100㎡ (자연녹지) 10.100㎡ (자연녹지)

대아공인중개사... 746-4989... 010-3691-5678... 펜션, 전원주택, 아파트, 투자용, 택지개발부지

명성부동산중개사무소... 722-8999... 010-8662-8998... 대정읍 영락리 1,254㎡ 3.3㎡당 99만원, 제주시 월평동 전 5,000㎡ 3.3㎡당 80만원

김연김부동산중개사무소... 746-1417... 010-8662-8998... *타운하우스개발지* *전원주택부지* *전원주택임대* *농가주택* *호밀* *전원주택분양*

덕진공인중개사... 744-1552... 010-6327-1552... 아라동, 응답동, 도두동, 소길리, 영평동, 와산리, 점포주택

일출부동산중개사무소... 752-7766... 010-3691-0852... 건물 및 APT 매매, 토지매매

예지공인중개사... 751-4008... 010-3693-5235... 선흘리 3,307㎡ 제주시내에서 대우교차로 가기전 변영로 접 당 39만원

동부공인중개사... 010-2800-4595... 064-747-5115... *노형증흥리내아파트6.3억* *이도지구 성업증식당매매 12억*